

보도시점 7. 1.(수) 석간 < 7. 1.(수) 06:00 >

중기부, 대학과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지원

- 테크노파크의 장비와 대학의 기술역량을 결합해 기술 문제 해결부터 R&D 과제 기획까지 지원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1일(수) 대전팁스타운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 전주대학교와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2026년 테크노파크 장비 활용 기반 혁신성장 협력지원 사업」(이하, 협력지원사업)의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6년 테크노파크 장비 활용 기반 혁신성장 협력지원 사업」 출범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 7. 1.(수) 10:30 / 대전팁스타운 1층 팁스홀
- (참석자)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 전주대학교
참여기업 충남·전북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주요내용) 2026년 하반기에 운영할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계획 발표, 참여 기업과의 질의응답 등

본 사업은 테크노파크와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연구장비와 대학의 전문인력·기술역량을 결합해 기업의 기술 문제를 진단하고, 장비 활용과 기술검증, 연구개발 과제 기획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은 제품 개선과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전문 장비와 기술 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적합한 장비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 결과를 실제 기술개발로 연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테크노파크 역시 다양한 연구장비와 기업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학의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테크노파크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 문제를 진단하고, 장비 공동활용과 기술자문을 거쳐 기술검증과 사업화 기술개발(R&D) 과제 기획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기업의 기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개발(R&D) 과제는 예비연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운영기관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한국과학기술원 컨소시엄과 ▲전북테크노파크-전주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각 컨소시엄은 2026년 7월부터 각각 지역 유망 중소기업 3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성능검증, 시험·인증, 전문가 기술자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컨소시엄이 하반기에 운영할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참여기업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개발 애로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국정과제 사업으로 기획 중인 ‘산학연 협동프로그램(K-ILP)’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정세환 (044-204-7760)
		담당자	사무관	이종우 (044-204-776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책임자	주무관	정지용 (044-204-7767)
		담당자	본부장	김현중 (044-300-0500)
			실 장	윤정수 (044-300-0650)
			팀 장	이나연 (044-300-0651)

